중국, 합성수지 시장침체 장기화

매출감소 · 가격하락 이중고 … PS가격 1400원으로 하락

중국 합성수지 시장이 공급과잉 및 수요부진으로 참체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최근 몇개월사이 중국내 관련 생산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판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래스틱 원료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급증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기업들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합성수지 시장은 96년 3월중 일시적인 매출증가로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4월이후 다시 침체기로 빠져들었으며, 특히 PS와 ABS수지 부문의 침체양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96년 5월중순경 중국의 PS 평균시세는 톤당 1400원으로 3월에 비해 800元이나 급락했다.
ABS수지 가격도 톤당 1600원으로 3월대비 900元이 떨어졌다.
중국의 PS 수입가격은 96년5월 전월대비 톤당 20달러 하락했고 ABS수지는 80달러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플래스틱 원료의 공급과잉, 수입증가, 국제시황 부진 등을 시장침체의 주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급측면을 보면 96년 1/4분기중 플래스틱 원료의 총생산량은 159만톤으로 95년동기 대비 14.5%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요는 플래스틱 제조기업들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 결과적으로 플래스틱 원료의 공급과잉을 초래했다.
1/4분기 중 중국시장에서 유통된 플래스틱 원료의 전체물량은 300여만톤으로 총수요를 87만톤정도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플래스틱 원료의 수입물량은 급격히 늘어나 중국현지 생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96년 1~4월 중 95년동기 대비 35.7%(67만톤) 크게 증가한 총 254만톤의 합성수지를 수입했다.
특히, PS 수입량은 총 75만5000톤으로 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플래스틱 원료의 수입급증은 중국내 관련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제품 판매가격을 더욱 인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플래스틱 원료 시장의 불황은 96년4월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조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가전제품 수입관세가 평균30% 인하됨으로써 TV부문을 중심으로 ABS수지 수요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국제시황의 부진도 중국의 플래스틱 원료 시장 불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6/9/9.16>